

투데이 칼럼

“역지사지 운운하는 도지사, 군산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김 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지난 22일 군산시민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군산시를 방문했다.

지역언론인과 간담회에서 새만금 관할권 다름 및 메가시티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은 전북자치도와 군산, 김제시 등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지만 관할권 문제와 얽혀 있어 진전이 없다고 했다.

또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와 관할권 문제는 별개로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런데 새만금관할권과 관련하여 새만금의 궁극적인 목표로 '통합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좀 더 열린 자세로 역지사지할 것을 운운하며 김제시의 소유권 주장에 관승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로 싸우니 군산의 권리를 열린 자세로 포기하란 말인가.

이어 군산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도지사는 여러 시군을 관할하고 더 큰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으로 좀 더 전략적인 의사 결정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작 이 말은 군산시민에게는 도지사의 현실 도피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김 지사의 군산과 새만금을 바라보는 일관성 없는 시각이 매우 유



김 영 일

군산시의회 의원

감스러울 뿐이다.

지난날 군산의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내면서 군산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여와 발전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 재임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군산시민들에게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에 넘겨주는 최악의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그뿐만이. 군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은 산업위기와 고용위기라는 고야말로 군산역사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수 만명의 시민이 고향 군산을 등지고 떠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한다.

또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차지했던 김제시는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에 짓고 있는 새만금신항마저 소유권(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으며 새만금이 발전은커녕 군산시와 김제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고 사업역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거기에도 익산을 중심으로 제2역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군산시민 입장에서는 군산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정작 제일 중요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3개 시군 갈등 중재는 권한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면서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은 별개로 추진한다고 하니 과연 특별자치단체가 갈등 봉합도 없이 구성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 현실적인 관할권 갈등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에도 어떠한 노력조차 보여 주지도 않았으면서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사활을 걸어온 군산시민에게 역지사지의 열린 자세를 가지라니 이것은 참으로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새만금신항 관련해서도 '항만법' 제5조 제2항 및 제5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도지사가 입장을 밝혀야 하는 근거도 법에 나와 있다.

새만금신항에 대해 전북도지사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우유부단한 자세로 인해 군산과 김제 간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라.

전북자치도의 상생 발전,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자자체에 넘기지 말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 지사가 작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제라도 군산시민의 민심을 청취하여 새만금신항이 누구의 관할권인지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분명하고 신속하게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관영 도지사의 손에 새만금신항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26만 군산시민과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사설

파리올림픽 출전 전북 선수 8명에 거는 기대

프랑스인 쿠베르탱 남작이 창설한 근대 올림픽이 올해에는 특별히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리고 있어 지구촌의 스포츠 매니아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대장정에 들어가서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진기록이 새로이 나올 것인지 관심 있는 스포츠 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이번 파리 올림픽 경기에는 206개국 1만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지고 특히 북한에서도 1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이채롭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 정보 사이트 마이인포에 따르면 북한은 총 1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레슬링 5명, 수영 다이빙 3명, 탁구 3명, 복싱 2명, 유도 1명, 기예체조 1명, 마라톤 1명으로 총 16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10명의 입원과 144명의 선수가 참여하는데, 그중 우리 전북 출신이 8명으로 전북 출신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는 자전거와 복싱, 역도, 사격,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8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전북인의 자긍심을 높일 예정이다.

먼저, 자전거 종목에서 김유로(한국국토정보공사) 선수와 송민지(삼양사) 선수가 출전한다. 두 선수는 개인도로 종목에 출전해 선의 경쟁을 펼친다.

두 선수는 2024 아시아 도로사이클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동반우승을 거두어서 파리행 티켓을 획득했다.

군산 출신으로 한국 복싱 간판 선수인 오연지(울산광역시체육회)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1회전 탈락이라는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국내 대회에서는 상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의 오 선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주목받았다.

역도에서는 유동주(진안군청) 선수가 출전하는데, 유 선수는 이

번 파리 올림픽까지 합하면 총 3번의 올림픽에 나서게 된다. 그간 부상으로 아쉬움이 컸던 지난 리우와 도쿄 올림픽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로 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격에서는 김예지(임실군청) 선수와 남원 출신의 양지인(한국체대)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표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특히, 이 두 선수 모두 메달 획득이 유망한 선수로 꼽히고 있어 귀추가 기대된다. 김예지 선수는 지난 5월 펼쳐진 국제사격연맹 바쿠 월드컵에서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할 만큼 최근 기량과 성적이 좋아서 더 기대된다.

양지인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한국 사격의 기대주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강한 종목인 배드민턴 종목에서 서승재(삼성생명) 선수와 공희용(전북은행) 선수도 금메달 유망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 출신이자 원광대를 졸업한 서승재 선수는 이번 대회에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 나서는 데 최근 상승세가 오르고 있는 기대주다. 지난해 펼쳐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선수로는 김동훈 선수 이후 24년 만에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히기도 했다.

공희용 선수는 환상의 파트너 김소영(인천공원) 선수와 여자복식으로 출전한다.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공희용 선수는 올림피아라는 큰 무대 경험이 있고, 다른 때와 달리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라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이 더 기대된다.

경기에서는 큰 경기이던지 작은 경기이던지 선수의 컨디션 상태와 상대선수와 어떻게 경기를 치르게 되느냐 등 여러 변수가 많다.

전북의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 8명이 이번 대회에서 선전하기를 기대한다.

태극마크를 단 전북출신의 자랑스런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을 획득해 프랑스에서 시상대에 올라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좋은 소식이 오길 소망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개미’로 침수된 거리 건너는 마닐라 주민들



24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민들이 제3호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침수된 거리를 헤쳐 나가고 있다. ‘개미’가 23일 필리핀 동쪽 해상 약 600km 부근을 지나면서 마닐라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대만에 상륙한 ‘개미’는 25일 중국 푸젠성과 저장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세 연설하는 해리스 부통령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키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웨스트앨리스의 센트럴 고등학교 행사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